



72

중량물 취급작업자에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성별	남	나이	30세	직종	품질관리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노○○은 1997년 11월 12일 ○○공장에 입사하여 약 5년 4개월 동안 기술개발부 품질관리팀에서 작업을 하였다. 2003년 1월 중순부터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노○○은 입사 이후 계속 기술개발부 품질관리팀에서 최종 생산된 수도꼭지의 외관 및 기능검사를 수행하였다. 비디오, 사진촬영 등을 통한 동작 분석과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샘플링 확인 검사작업의 허리 및 하지에 대한 OSHA의 위험 평가 결과 총점이 9.5점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샘플링 확인 검사 작업시 들기작업에 대한 WAC 평가에서도 LI 값이 0.550로 나타나 작업이 전반적으로 1점 미만으로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소견 및 고찰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변성화된 추간판과 불안정한 요추의 운동분절에 외력을 받았을 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수핵이 탄력성을 잃은 섬유륜, 특히 후종인대가 덮혀 있지 않은 후·외측으로 돌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은 2003년 1월 허리 통증을 느껴 2월부터 4월까지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아왔다. 요추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CT상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요부염좌 및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근로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조립공정검사와 일일 출하검사(외관 및 기능검사) 작업시 작업자세 및 조건, 작업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본인의 진술과 동료의 확인(혼자 들기에 적당하며, 몸통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같은 부서내 동료 근로자에서 허리나 기타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음) 결과, 중량물의 취급에 의한 급성적인 재해의 가능성도 없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산업의학적 조사와 인간공학적 조사를 종합하여 보면,

- ① 근로자 노○○의 진단명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과 요추부염좌로,
- ②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 외상력과 특이 질병력은 없었으나,
- ③ 5년 4개월 간의 출하 제품 외관 및 기능검사와 그에 따른 제품의 운반 이송작업이 요추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인간공학적 조사 결과 들기작업의 위험평가에서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